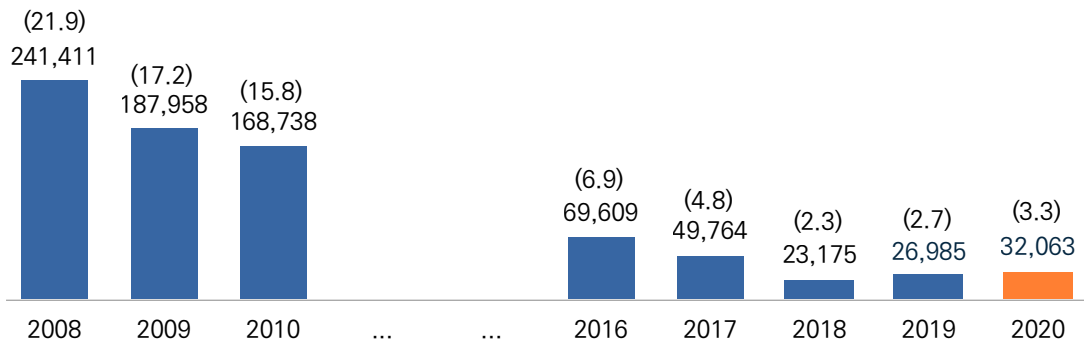




2020년 낙태 32,000건...2018년 대비 38% 증가!

- ▶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‘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(2021년)’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약 32,000건의 인공임신중절(낙태)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. 이는 10년 전(2010년) 17만 건에 달했던 것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다. 그러나 2018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2018년 대비 38%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또, 2020년 만15~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‘천 명당 3.3건’으로 조사됐다. 이는 2020년 낙태를 시행한 건수를 토대로 1천 명당 임신중절률을 계산, 15~44세 인구에 대입해 비중을 환산한 것이다.

[그림]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추이 (건) < 괄호 안은 중절률(천명당) 임 >



*자료 출처: 보건복지부/한국보건사회연구원,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(2021년) 주요결과 발표 보도자료, 2022.06.29.(만 15~49세 여성 8,500명, 온라인조사, 2021.11.19.~12.0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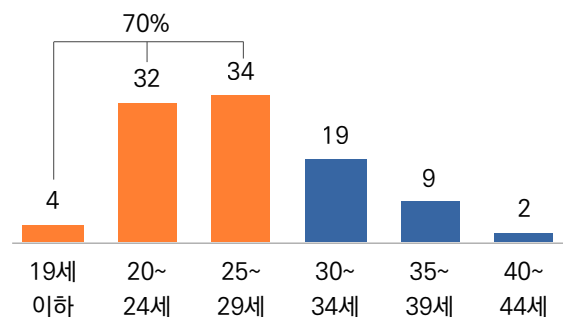
◎ 인공임신중절 경험자, 중절 당시 평균 연령 27세...20대가 낙태 경험 가장 높아!

- ▶ 인공임신중절(낙태)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중절 당시 평균 연령(2020년)은 만 27세로, 2018년 결과(평균 만 28세)와 비교해 1살 정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.
- ▶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‘25~29세’ 34%, 20~24세 32%, 30~34세 19% 순으로, 낙태 경험자 중 20대 이하 여성이 10명 중 7명(70%)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.

[그림]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의 당시 평균 연령 (2020년, 인공임신중절 경험 있는 여성)



[그림]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의 당시 연령 (2020년, 인공임신중절 경험 있는 여성, %)



*자료 출처: 보건복지부/한국보건사회연구원,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(2021년) 주요결과 발표 보도자료, 2022.06.29.(만 15~49세 여성 8,500명, 온라인조사, 2021.11.19.~12.06)

**보도기사: 2020년 인공임신중절 3만 천건...임신여성중 15% "낙태 경험"(연합뉴스)(<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0630100900530?section=search>)